

'군산북페어'로 문화저력 뽐내

작년 6600명 방문자 기록... 올해도 특별한 관심 기대 '텍스트힙' 문화와 맞물려 사회관계망 언급량 1400% ↑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뜨는 도시)'·'2025년 기대되는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산은 이동통신 데이터,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독서 문화인 '텍스트힙(Text Hip)'에 맞물려 MZ세대가 사랑하는 책의 도시이자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텍스트힙(Text Hip)'은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넘어, '밋지고 개성 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군산북페어'는 문화도시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군산시립도서관,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지역 특화 콘텐츠이다. 2024년 처음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동안 6,600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군산의 매력을 극대화하

며, 군산이 단순한 근대 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과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감성 여행지로서의 가능성도 열어준 문화 이벤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북페어 HOT 연관어 1위로 '군산'이 기록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언급량이 무려 1,400%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감성적인 독립서점들이 밀집한 월명동이 행사 전후 2개월 동안 '북페어'를 계기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외지인 방문객 수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2% 증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는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군산시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것 이외에도 2025년 전라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로 선정하며, 군산만의 독특한 매력과 성공 사례를 높게 평가했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군산북

페어'가 단순히 책을 소비하는 행사를 넘어 책을 매개로 군산이라는 도시와 교감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시는 2024년 가장 주목받은 지방 북페어인 '군산북페어'가 올해도 특별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목한 기대되는 문화와 책의 도시 군산은 2025년도에 또다른 '성공의 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산의 새로운 인기 문화 행사로 떠오른 '군산북페어 2025'는 오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개최된다. 장소는 군산회관(대학로 308)이며, 국내외 서점 및 출판사 100여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의 책 창작자, 출판사, 동네 책방, 시민이 직접 교류하는 '책문화화마당'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형식의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책박람회' 외에 북토크, 전시회, 세미나, 포럼, 작가 강연, 체험 등이 다양하게 준비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 발의 조례 전부개정안 기결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의 1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한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실천 계획에 추가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진영(진보당, 동산·영동1동)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임선 의원, 최중오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자원 낭비 방지, 탄소중립 실천을 도시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것에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적용범위는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행사·축제 등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고,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 다회용기 대여·세척·공유 사업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조례에 담았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한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실천 계획에 추가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익산시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익산시는 점차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림복지정책 우수성 인정 받아

원광대~원광대병원, 누구나 걷기 좋은 4.1km 숲길 조성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무장애나눔길 분야 '장려상'

익산시가 자연과 사람을 잇는 포용의 길을 조성해 산림복지정책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28일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무장애나눔길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복원기금을 재원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사업을 추진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원광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가 없는 길'을 뜻하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단차 없는 산책길이다.

시는 2023~2024년 총사업비 20억원(녹색자금 12억원, 시비 8억원)을 투입해 원광대학교에서 자연식물원을 거쳐 원광대학교병원까지 연결되는 총 4.1km 구간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했다.

사업을 통해 데크길과 황토길로 산



책로를 조성하고 곳곳에 쉼터와 벤치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연에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무장애나눔길은 단순한 보행 기반 조성을 넘어, 누구나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산림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산림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내 주요 산책로 동선에 초화류를 심어 꽃길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황금연휴 시정 공백 최소화"

3일 서동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차질 없는 운영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길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열리는 각종 문화·관광 행사에 대한 준비 상황이 점검됐다.

특히 정 시장은 오는 3~6일 나흘간 열리는 익산 서동축제와 관련, 안전관리부터 긴급상황까지 대응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정 시장은 "서동축제를 비롯해 황금연휴에 열리는 행사는 익산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현장 관리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무와 휴식을 적절히 조율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 연휴 기간 주요 행사 현장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휴 이후 빠른 시정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 시장은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등에 대해 강조하며 "선배 공무원이 술선수범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군산시에는 약 270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약 90개소 중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2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다.

지원 내용에는 △기업별 업종에 적합한 영상, 스포츠, 카드 뉴스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및 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마케팅·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입점 및 기획전 참가비용 지원 등이다.

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454-2673)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